

# 다산포럼

정지창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계획이 추진되면 서 지역의 유치들과 언론들이 앞 다투어 대운하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이른바 지역 개발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지자체 단 체장을 중심으로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한 지역 신문사의 사설대로 '대운하의 타당성 논리를 개발하 느라 부산한다.

경제적 타당성이 있으므로 운하를 만들 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해 운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환경 파괴나 다른 이유로 반대하는 사 람은 마치 배신자처럼 왕따 당하고 각종 언어 폭력과 물리적 폭력에 시달리는 것 을 우리는 방산선계기물처리장 건설 같 은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보아 왔다.

오래 전 경주에 경마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추진되었을 적에 나는 경마장이 천년고도 경주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지역 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무심코 한마디 했더니 당장 반응이 왔다.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전화를 걸어 다짜고 짜 소리로 욕을 하든가, 점잖게 본관이 어디고 고향이 어디냐고 캐묻는 통에 혼 이 났다.

이런 전화를 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지 역의 토호이자 땅부자들이라고 경주 지역 의 알 만한 사람이 내게 귀띔해준 기억이

난다. 그러나 지역 언론에서 주최하는 토론회 도 일방적인 찬성론자들의 쫄기대회나 단 합대회가 되기 일쑤다. 찬성론자들만 모아놓고 공청회를 열 어 이른바 영어몰입교육은 세계화시대의 필연이라고 밀어붙이려 하는 이 정부 에서 토론회나 공청회는 일종의 통과 의 레나 여론몰이 용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주최측에 유리한

해 여론으로 확산되고 정부는 이를 운하 사업의 추진력으로 삼을 것이 뻔하다.

당장 4월 총선에서도 여당은 지역개발 과 대운하 사업을 내세워 눈앞의 조그만 개발이익에 현혹된 지역민들의 표를 끌어 담아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면, 국회에서 다수의 힘을 앞세워 대운하 사업을 밀어 붙이지 않겠는가.

눈앞의 돈벌이에 눈이 먼 투기꾼들과 건설업자들에게는 경제보다 중요한 것이 땅과 물과 태양과 바람이라는 봉암사 스님들이나 국토순례단 시인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청계천을 시멘트로 덮고 고 가치도를 만들더니 얼마 후에 이를 걷어 내고 시멘트로 인공하천을 만드는 과정 이, 정부관료들과 성장론자들의 눈에는 자연을 거스른 개발의 미움함과 어리석음 의 징표가 아니라 효과적인 도시개발과 환경복원의 성공사례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영남대 독문과 교수·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개발이익에 현혹된 사이

참석자들을 선정하는 것은 관치행정의 오랜 관행일 뿐이다. 벌써부터 낙동강 주변 지역의 땅값이 들쭉이고 투기 바람이 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운하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이들의 주장은 결국 땅값 폭등으로 땅 투기꾼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구실일 뿐이다. 지역 토호들의 주장은 지역 언론에 의

## 시설

### 하계 U대회 광주 유치 정부지원 기대한다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유치 확정일(5월 31일)이 8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광주시는 유치를 총력을 쏟고 있다. 범국가적 행사인 하계 U대 회 유치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 한승수 총리도 "평창의 한 을 광주에서 풀겠다"며 팔을 걷어붙였 다니 기대가 크다.

하계 U대회의 광주 유치는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 이미 수도권과 영남권은 올림픽과 아시 안게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체 육행사를 1~2번씩 이미 치렀거나 유치가 성공했다. 그리고 유치도시는 이들 대회를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이에 비해 광주·전남은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국제적인 체육행사를 유치하 지 못했다. 광주시가 하계 U대회 유치가 나선 것도 부산, 인천, 대구 등과 같 이 국제체육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발전 을 꾀하고 국제도시로 도약하려는 의지 의 결과다.

하지만, 국제체육행사 유치는 지자체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벅겁다. 더욱이 하 계U대회 유치전에는 러시아 카잔이 3년 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꺾 게 도전에 나서고 있다. 최근 광주를 방 문한 킬리안 국제대학스포츠연맹 (FISU) 집행위원장도 광주와 카잔이 최 종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다. 범정 부 차원의 지원활동이 절실한 이유다.

정부와 광주시는 하계 U대회 유치를 한마음 한뜻으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 해야 한다. 하계 U대회는 새 정부 들어 첫 국제규모 체육대회 유치전이라는 상 징성을 띠고 있다. 참여정부는 여수대 회를 통해 비약적인 지원을 해 성공 을 거둔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치지 원단을 구성하고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범국가적 지원시스템을 서둘러 마련해 야 한다.

정부가 하루빨리 광주시 및 유치위원 회의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전 방위적인 유치전에 나선 것을 촉구한다.

### 총선 후보 '농장 공천' 부작용 심각하다

4·9 총선 구도가 '안갯속'이다. 통합 민주당은 아직까지 단 한 명의 공천자 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주요 지지기반인 영남지역 공천을 뒤로 미루고 있다.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 상 당수 지역구에서 출마자의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당마다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대선 참패 이후 지도부 구성 과 당 통합 등의 과정을 거쳐야 했고 개혁공천을 놓고 혼란을 치르고 있다. 한 나라당 역시 계파간 갈등이 증폭될 것 을 우려해 공천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천 불복과 재심 청구 등 후폭풍 도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농장 공천에 따른 부작용은 심각하다. 광주·전남에선 민주당이 공 천 일정과 방법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 아 각종 설들이 난무하면서 불·탈발을 조장하고 있다. 후보를 2~4배수로 압 축했다지만 1차 공천자도 발표하지 못 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유권자 입장에서도 인물과 공약을 검 증할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 후보 등록 이 오는 25일 시작되는데도 공천이 아 직까지 공천자를 내놓지 못하는 것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 다.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유권자에게 합리적 선택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정치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 한다. 후보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공 약을 마련하기 어렵다. 자칫 과거 단골 로 등장했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 약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특 히 정치 신인들은 인지도를 높일 기회 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 개개인의 판단 이 중요하다. 공천자가 확정되면 공천 불복에 따른 무소속 출마 사태 등 광주· 전남의 선거판은 요동을 칠 것이 틀림 없다. 유권자들은 출마자들의 인물과 자질, 정책 등을 면밀히 살펴 후회없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 NGO 칼럼

정환담



다가오는 제18대 총선에 관한 뉴스를 듣다가 문득 TV채널을 돌리니 야생동물들의 세계가 펼쳐진다. 동물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 그들도 민초들처럼 살아보 겠다고 때를 지어 서로 돕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모습이 비쳐진다. 가장 작은 개미떼들의 공동생활은 참으로 질서정 연하고 빈틈이 없는 조직의 모습이다. 저렇게 부지런히 일하며 사는 모습을 의롭게 보아 옛사람들은 개미를 '의충'(蟻蟲)이라고 불렀던가 보다. 꿀벌들도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부지런히 꿀을 모으고 일을 냈고 키우는 데 실 틈이 없 다. 벌보다 고등한 인간들은 그 벌들에 게 그럴 듯한 거짓 음식으로 속이고 대

따라서 선거를 통한 끈끈한 결속을 만 든다. 이를 보면서 식자우환(識字憂患) 같은 유식한(?) 생각을 해본다. 선거운 동조직도 'NGO'냐고, 유권자를 조직하 고 돈 받고 뛰는 것도 'NGO'인가? 사람들이 모이면 다 'NGO'냐고 반문 할지 모르나 내 생각에는 사람들이 자 발적으로 모이면 일단은 'NGO'이지 않 을까. 목적의 순수성과 정의부합성으로 모여야 예컨대 사회봉사회, 스포츠동호 회, 동창회 등을 'NGO'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좋은 'NGO'는 현실적 으로 어려움이 많다. 우리는 우리의 국제무명성기구한국 본부(한국투명성기구)와 같은 단체를

### 정치 앞에 약해지는 시민운동

부분의 꿀을 빼앗아 간다. 꿀벌들은 꿀을 빼앗기면서도 그들의 삶을 지키려고 협력하며 일하고 살아간 다. 사람이 기르는 가축도 사람에게 잡 아먹히면서도 가축 때의 공동생활을 지 속한다. 짐승들의 공동생활도 사회생활 인가? 그들이 싸우고 함께 도망하는 것 을 보면 공동체의식이 있는 것 같아 보 인다.

호주의 한 목장에서 본 바로는 주인 은 개와는 친하여 개로 하여금 양떼를 몰게 하지만 양떼와 주인 간에는 친화 관계가 지극히 없다. 이러한 동물들의 사회와 사람의 사회 사이에는 어떠한 동 질성이 있을까? 모든 기운을 가진 무리 들은 모두가 다 그 뜻 맞는 이를 만나기 를 바란다. 다만 사람과 짐승 사이에는 그 근기(根基·뿌리)를 내린 터전)의 차 이가 있을 뿐이리라.

최근 선거철이 닥치니 뜻 맞는 이들 이 같은 뜻을 따라서 겹겹이 모인다. 혈 연·지연·학연과 다양한 문화적 취향에

'NGO'라고 생각하여 왔다. 그런데 이 러한 활동은 매우 번거롭고 여러 가지 강한 저항에 부딪혀 참여도가 낮아지고 지원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가령 행정 기관이나 고도의 권력적, 정치적 기구 에 대한 반부패운동, 투명성운동은 고 도의 집중적·전문적 인력의 참여를 필 요로 한다. 이 경우에 사적인 자원봉사자들인 시민·사회단체 운동가들은 힘이 빠지고 대항력을 잃게 된다. 공공기관의 재정 적 도움을 조금만 받아도 시민·사회단 체는 약화되고 만다. 대선이나 총선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에는 어딘지 힘 있 고 신나는 운동으로 보인다. 반면에 정도만을 주장하는 건전한 시민운동의 실효성은 어려운 한계에 부딪 히고 있다. 오늘날 고도의 부패·은폐적 인 정치집단 앞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시들어 가거나 변질하고 있음을 비탄하 지 않을 수 없다.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 화장품 이름과 내용 한글로도 표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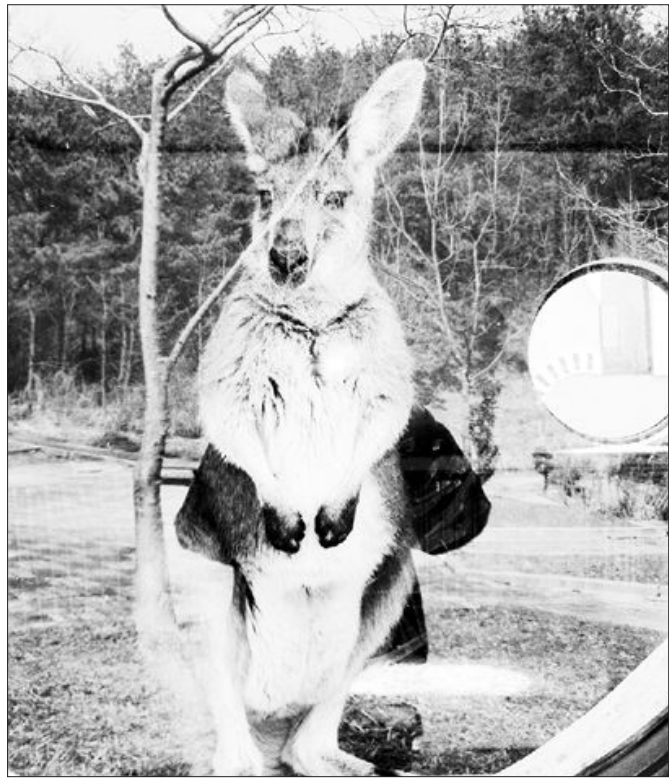
여성들이 외모를 가꾸는데 가장 필수품으 로 여기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화장품이다. 종류와 제조 회사에 따라 값도 천차만별이 고 비싼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다. 필자의 어머니는 50대 후반이다. 그 시대 에 태어난 분들이 대부분 그렇듯 어머니는 많이 배우지 못한 탓에 영어는 아예 모른다. 그래서인지 화장품을 사용할 때 가끔 곤혹 스러워하거나 짜증을 낸다. 그 이유는 화장 품의 제품명은 물론 표기 내용까지 대부분 이 영어로만 써져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가격에 알맞은 제품을 사서 쓰고 싶어 화장품숍에 가도 운통 영어로만 돼 있 으니 답답해 한다. 제품 이름을 말하지 못한 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거나, 손가 락으로 가르키며 "이거 얼마요, 저거 얼마

요"라고 물을 땀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한다. 한번은 제품에 대해 전화를 하다가 화가 나서 툭 끊어버린 적도 있었다. 숲 직원과 통 화하던 중 직원이 어떤 제품을 말하는 거냐고 재차 묻자 영어를 모르는 어머니는 제품 이름 을 대지 못해 그냥 포기하고 만 것이다. 화장품은 피부와 직접 닿는다. 제품에 중 금속 성분이 있거나 피부에 맞지 않을 경우 심각한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사용설명서 중요하다. 화장품 표기가 한글로 돼 있어야 하는 중요성이 여 기에 있다. 영어로만 돼 있는 화장품의 이름과 표기 내용을 몰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한글 표기를 촉구한다. <▲김상욱·목포시 대방동



### 캥거루의 사람구경



동물원에 있으면 사람이 동물을 구경 하는 건지, 동물이 사람을 구경하는 건 지 헷갈릴 때가 많다. 캥거루의 일종인 '왈라루'의 경우도 그렇다. 출지 말라고 겨우내 따뜻한 내 실에만 가뉘 두었더니-물론 내실도 지 내기에 충분히 넓고 쾌적하다-어떻게 방법을 터득했는지 모르지만, 동그랗고 넓게 뿔린 유리창틀에 올라앉아 세상구 경을 한다. 암컷 두 마리 중 꼭 한 마리만 그렇게 한다. 그러나 동물들의 성격도 각각 각 색임을 알 수 있다. 아마도 깊이 연구를 해보진 못했지만 사람처럼 혈액형도 그 성격에 한목자 아니냐 싶다. 개는 혈액 형이 7가지고 소는 12가지나 가지고 있 다고 한다. 처음에는 이 녀석도 꽤 얌전했다. 낮선 곳에 대한 두려움인지, 한쪽 구석에서 부 들부들 떨다가 사육사가 들어가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그 뒤는 와중에 우연히 이 녀석은 유리창 의 효능을 눈여겨 보아둔 모양이다. 그렇게 두어 달의 적응기간을 거치고 이젠 사육사가 들어가도 본체만체고 많 은 시간을 유리창틀에 올라가 세상구 경을 한다. 사람들이 뻔히 쳐다 보와도 이 녀석은 요지부동으로 햇볕을 쬐던지 자 기를 쳐다보는 사람들을 마주보던지 한 다. 이 녀석과 눈싸움 하는 것도 나름 재 미가 있다. 비록 작은 변화이지만 스스 로 놀이를 찾아가는 이런 행동들이 마 냥 신기하고 대견하기만 하다. <◇최종욱 광주유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 학생들에게 전통음식 중요성 가르쳐야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편식이 아주 심각하다. 반찬으로 김치나 나물이나 나오는 날에는 아예 손도 안대는 아이들이 많다. 학생들 에게 채소류와 나물류의 영양소를 알려주며 먹지라도라도 조금씩 먹게 하려 하지만 쉽지 않다. 그와 반대로 햄이나 돈까스 등의 반찬 이 나오는 날은 거의 남기지 않는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햄버거·피자·치킨·햄 등 인스턴트 음식에 너무 쉽게 길들 여지는건 심각한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 몸에 좋은 김치·된장찌개 같은 전통음식 은 잘 먹지 않으면서 아예 밥과 반찬 대신 에 라면·빵·스파게티로 식사하는 아이들 도 많다. 아이들의 이런 식습관은 비만과 소아 당 뇨 등의 요인으로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에 무척 해로운 뿐 아니라 균형 잡힌 우리 전통

상차림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집에서 신경 써서 먹여도 아이가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밖에서 음식을 먹는 횟수가 늘 어갈수록 입맛이 서구화될 수밖에 없는 것 이다. 어릴 적 입맛이 평생의 입맛을 결정한다 고 하는데 이리더가 지금의 아이들이 어른 이 되면 우리 식탁에서 김치나 나물 같은 전통 반찬은 아예 자취를 감추버릴지 모르 겠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아이들의 편식을 단순 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해 전통음식의 중요성을 더 적 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빈자·김치 등 전 통음식이 암 등 질병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 학생들이 우리 전통음식을 멀리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황인희·광주시 동구 대인동

## 無等鼓

며칠 전 펀드투자 실패로 고민하던 부산의 30대 임산부가 자살했다. 그녀 는 은행대출에 카드빚을 끌어모으고 전 세를 월세로 돌리는 방법으로 3억 원을 마련해 펀드에 투자했다. 그러나 수익 률은 계속 떨어졌고 금융권으로부터 견 디기 힘든 대출금 상환 압박을 받았다. 결국, 출산을 불과 10여 일 앞두고 그녀 는 친정 어머니에게 자살하겠다는 마지 막 말을 남기고 목숨 을 끊었다.

지난 90년대 말 외 환위기 이후 추가 폭 락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 다. 자살이 잇따르면 증시는 바닥이라는 전 망 아닌 전망이 나돌 정도였다.

그러나 간접투자에 위험도가 낮은 펀드투자인데도 그녀를 자살로 내몬 근본적 원인은 빚을 낸 무 리한 투자, 욕심이다. 또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건 금융권의 대출상환 독촉으 로 그녀에게 큰 심적 고통을 줬을 것이 다. 최근 미국에서는 대출받은 사람들이 상환을 독촉하는 은행을 오히려 협박하

는 '징글메일(Jingle-mail)' 이라는, 정 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주택가격 이 밀바라까지 떨어지는데다 극심한 자금 압박까지 받는 주택대출자들이 대출이 자를 감당치 못해 결국 너나 할것없이 집 열쇠를 봉투에 넣어 은행에 보내 버 리고 대출고통에서 해방되고 있다는 것 이다.

펀드봉투 속에 든 열쇠들이 짹짹짹 (jingle)소리를 낸다 해서 붙여진 신조어인 데, 징글메일이 금융 권에 1조 달러 이상의 손실을 끼칠 것이라 한다. 징글메일은 금 융권에 공포의 쓰나미 로까지 불리고 있다.

지난해 포스코 부자 로 9억7천800만달러 (9천291억원)를 벌여 들인 워런 버핏은 이달 초, 마구잡이로 대출을 퍼주었다가 받고 있는 이런 어 려운 금융기관의 인과응보라고 꼬집 었고 '잡자리에 틀 때는 미너인데, 아침 에 깨고 나면 아니더냐'며, 주식 연10% 수익은 환상이며 꿈에서 깨라고 주문했 다. 투자 귀재의 충고다. </기현호 경제부장 khh@kwangju.co.kr

## 징글메일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대표전화 2200-551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29	문 화홍보부 2200-626 <F A X 227-9500>	광고마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16	여 령제작부 2200-628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구독료 월정액 8,000원 1부 400원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